국토교통부 | 보도자료

보도시점 : 2026. 3. 19.(목) 11:00 이후(3. 20.(금) 조간) / 배포 : 2026. 3. 19.(목)

‘26년 하계 정기 항공편 일정 확정

- 3월 29일부터 국제선 최대 46개국, 245개 노선을 주4,820회 운항
- 김해-인천 내항기 주4회 증편, 제주-인천 국내선 5월 중 신설 추진
- 항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 사항 첫 적용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김윤덕)는 **’26년 하계***(’26.3.29~’26.10.24) **정기 항공편 일정**을 **확정**하였다.

* 계절적 수요에의 탄력 대응, 일광절약시간제(daylight saving time)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을 고려,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1년에 2차례(하계·동계) 항공 운항일정을 조정

○ 이번 일정에는 국제선 운항 확대와 지방 공항 연계 강화, 제주-인천 노선 신설 추진 등이 반영돼 **국민의 이동 편의**와 **항공 서비스 선택폭**이 함께 **넓어질 전망**이다.

□ **3월 29일(일)**부터 시작되는 ’26년 하계기간 중 **국제선**은 **245개 노선**을 **최대 4,820회** 운항할 예정으로, 이는 **’25년 하계기간**(’25.3.30~’25.10.25) 운항횟수 대비 **소폭 증가**(주37회, +0.8%)한 수준이다.

* (’19.夏) 주4,619회 → (’24.夏) 주4,528회 → (’25.夏) 주4,783회 → (’26.夏) 주4,820회

○ 이번 하계에는 **부산-미야코지마**(일본, 진에어)가 **신규 취항**하게 되며, 지난 **동계**에 **운항**을 **중단**했던 **인천-몬트리올**(캐나다, 에어캐나다)·**캘거리**(캐나다, 웨스트젯)·**자그레브**(크로아티아, 티웨이) 등이 **복항**한다.

□ 국내선은 **제주노선**(12개)과 **내륙노선**(8개) **총 20개** 노선*을 **주 1,806회** 운항할 계획으로, 이 중 **제주노선**은 **주 1,534회** 운항한다.

* (제주) 광주, 군산, 김포, 김해, 대구, 사천, 양양, 여수, 울산, 원주, 청주, 포항
(내륙) 김포-김해, 김포-울산, 김포-광주, 김포-사천, 김포-포항, 김포-여수, 인천-김해, 인천-대구

○ 특히 이번 하계에는 **지방 네트워크 강화**에 중심을 두고, **김해와 인천을 잇는 환승전용 내항기**를 주 4회 **증편하고**(주 39회), **제주와 인천을 연결하는 국내선 개설**을 **추진**하여 이르면 **5월 중 운항**을 시작할 예정이다.

□ 특히, 이번 '26년 하계 정기편 일정부터는 작년 4월 발표한 「**항공안전 혁신 방안**」 후속조치에 따라 **항공사**의 **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** 「**항공사업법 시행규칙**」 개정('25.12.30.부) 사항이 정식으로 **적용**되었다.

○ 그동안에는 시즌별 **사업계획변경인가 검토** 시 **개별 노선의 관점**에서 **안전성을 검토**하였으나, 이번부터는 **시즌 전체의 운항규모가 증가**하는 경우 항공기 및 항공종사자(정비사·운항승무원 등)의 수가 **충분한지** 등을 검토하여 항공사로 하여금 **안전관리에 만전**을 기하도록 하였다.

○ 특히, 항공기 정비시설 및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 **운항안전**과 관련된 사항은 노선허가 과정에서 **철저한 사전 안전성 검토**를 거쳤다.

□ 국토교통부 **주종완 항공정책실장**은 "항공사들의 **안전 운항**을 도모하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**개정 이후** 이루어진 **첫 정기편 인가**로서, **안전성**을 **최우선**으로 하면서도 **국민들의 이동수요**를 **적극 고려**하여 일정을 확정하였다"면서,

○ "이번 하계부터 대한항공-아시아나 **기업결합 관련** 국내외 노선*에서 대체사로 선정된 **LCC들이 운항을 시작**하게 되므로 **안전운항 관리에 더욱 만전**을 기하고, 앞으로도 국민들의 **선택권 확대**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* (국제선) 인천-호놀룰루, 인천-자카르타 (국내선) 김포-제주

담당 부서 <국제선>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차상헌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김동환 (044-201-4215)
		담당자	주무관	허백용 (044-201-4220)
<국내선>	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준상 (044-201-4219)
		담당자	사무관	이금아 (044-201-4224)
		담당자	주무관	김은진 (044-201-422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 고 **공항별 국제선 세부노선 ('26년 하계 정기인가 기준)**

국내공항	세부 노선
인천 (155개)	· (**동북아**) 고베, 구마모토, 기타큐슈, 나가사키, 나고야, 나토리, 니가타, 도쿄나리타, 도쿄하네다, 마쓰야마, 마츠시게, 미야자키, 미조베, 사가, 삿포로, 쉬모히시마, 시즈오카, 아오모리, 오사카, 오이타, 오카야마, 오키나와, 요나고, 이바라키, 이시가키, 코난, 코마쓰, 하코다테, 후쿠오카, 히로시마(이상 일본), 광저우, 구이린, 난징, 다롄, 베이징다싱, 베이징서우두, 상하이푸동, 샤먼, 선양, 선전, 스자좡, 시안, 옌지, 옌청, 옌타이, 우시, 우한, 원저우, 위해, 자무쓰, 장가제, 정저우, 지난, 창사, 창춘, 청두, 충칭, 칭다오, 쿤밍, 타이저우, 톈진, 푸저우, 하얼빈, 하이커우, 항저우, 허페이, 홍콩, 마카오(이상 중국), 타이베이, 가오슝, 타이중(이상 대만), 울란바토르(몽골) · (**동남아**) 방콕수완나품, 방콕돈무앙, 푸켓, 치앙마이(이상 태국), 자카르타, 발리, 바탐(이상 인니), 싱가포르(싱가포르), 마닐라, 세부, 앙헬레스, 칼리보, 탁빌라란(이상 필리핀), 하노이, 호찌민, 나트랑, 다낭, 푸꾸옥, 하이퐁(이상 베트남), 양곤(미얀마), 크라티에(캄보디아), 비엔티안(라오스), 쿠알라룸푸르, 코타키나발루(이상 말레이시아), 반다르스리브가완(브루나이) · (**서남아·CIS**) 알마티, 아스타나, 쉼켄트(카자흐스탄), 타슈켄트(우즈베키스탄), 델리(인도), 콜롬보(스리랑카), 카트만두(네팔), 아쉬카밧(투르크메니스탄) · (**미주**) LA, 뉴욕JFK, 뉴욕뉴왁, 달라스(포트워스), 라스베가스, 디트로이트, 미니애폴리스, 바틀렛츠, 보스톤, 샌프란시스코, 솔트레이크시티, 시애틀, 시카고, 아틀란타, 워싱턴, 호놀룰루, 괌, 사이판(이상 미국), 몬트리올, 밴쿠버, 캘거리, 토론토(이상 캐나다), 멕시코시티, 몬테레이(멕시코) · (**유럽**) 파리(프랑스), 암스테르담(네덜란드), 런던(영국), 프랑크푸르트, 뮌헨(이상 독일), 로마, 밀라노(이탈리아), 바르샤바, 브로츠와프(이상 폴란드), 헬싱키(핀란드), 부다페스트(헝가리), 마드리드, 바르셀로나(스페인), 비엔나(오스트리아), 프라하(체코), 자그레브(크로아티아), 리스본(포르투갈), 코펜하겐(덴마크) · (**중동·아프리카**) 두바이, 아부다비(이상 UAE), 도하(카타르), 이스탄불(튀르키예), 아디스아바바(에티오피아) · (**대양주**) 시드니, 브리즈번(이상 호주), 오클랜드(뉴질랜드)
김해 (39개)	· (**동북아**) 구마모토, 나고야, 도쿄나리타, 마쓰야마, 삿포로, 쉬모히시마, 오사카, 오키나와, 후쿠오카(이상 일본), 베이징서우두, 상하이푸동, 선양, 스좌장, 시안, 옌지, 장자제, 칭다오, 홍콩, 마카오(이상 중국), 타이베이, 가오슝, 타이중(이상 대만) · (**동남아**) 방콕수완나품, 치앙마이(태국), 싱가포르(싱가포르), 마닐라, 세부, 앙헬레스, 탁빌라란(이상 필리핀), 하노이, 호찌민, 나트랑, 다낭, 푸꾸옥(이상 베트남), 코타키나발루(말레이시아), 비엔티안(라오스), 발리(인니) · (**서남아·CIS**) 알마티(카자흐스탄) · (**미주**) 괌(미국)
청주 (19개)	· (**동북아**) 키타큐슈, 나고야, 도쿄나리타, 삿포로, 오비히로, 오사카, 오키나와, 이바라키, 후쿠오카, 히로시마(이상 일본), 상하이, 옌지, 장자제(이상 중국), 타이베이(대만), 울란바토르(몽골) · (**동남아**) 다낭, 나트랑(이상 베트남), 앙헬레스(필리핀), 발리(인도네시아)
대구 (14개)	· (**동북아**) 도쿄나리타, 오사카, 후쿠오카(이상 일본), 상하이푸동, 옌지, 장자제, 칭다오, 홍콩(이상 중국), 타이베이(대만), 울란바토르(몽골) · (**동남아**) 방콕수완나품(태국), 다낭, 나트랑(베트남) · (**미주**) 괌(미국)
제주 (18개)	· (**동북아**) 도쿄나리타, 오사카, 후쿠오카(일본), 광저우, 난징, 닝보, 베이징다싱, 베이징서우두, 상하이푸동, 선양, 선전, 칭다오, 항저우, 홍콩(이상 중국), 타이베이, 가오슝, 타이중(대만) · (**동남아**) 싱가포르(싱가포르)
김포 (8개) * 정기편 미대상	· (**동북아**) 도쿄하네다, 오사카, 나고야(이상 일본), 베이징다싱, 베이징서우두, 상하이훙차오(이상 중국), 타이베이, 가오슝(이상 대만)

※ 상기 계획은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수시 인가에 따라 노선이 추가될 수 있음